

학대와 소유의 변증법; 몸의 정치학과 신화

조셉의 작품은 사회의 본질에 속하는 문제들, 즉 믿음, 역사, 개인의 사회적 정체성들의 문제를 다루어 왔다. 그러므로 작가의 예술적 지향점이 어떤 정치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가 쉬울 것이다. 그것이 사회적인 정치성이든 아니면 개인적 위상에 관한 문제적인 시각의 발현이든 정치적이란 것은 개인이라는 주체와 현실로 존재하는 객관적인 상황의 관계에 대한 문제로 생각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개인의 의식이 사회적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삶과 의미의 그물을 직조하는가의 문제로 들어가게 되면, 그런 인식으로부터 비롯되는 생각과 행위들은 삶의 다양한 실천의 문제로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면에서 조셉이 이번 전시에서 차용하는 주제들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첫 번째는 작가 자신이 주요 캐릭터로 등장하는 연출된 장면들에서 개인으로서의 주체가 가지는 시각의 불안함과 사회에 내재하고 있는 코드들에 대한 반응의 형식이다. 두 번째는 진실이라 생각되는 의미들과 대면하는 개인적 의식이 가질 수 있는 존재의 역사적 확장과 속성에 관한 문제이다.

1980년대의 포스트모더니즘 이후 현대미술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성은 의미의 순환적인 활용이다. 여기서 순환적이라는 의미는 단순히 의미를 반복적으로 재생산 한다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기억들이 가지고 있는 무게와 사회의 표면적인 기호들이 충돌한다는 의미이고, 작가의 예술품 생산이라는 행위와 섞이게 되는 모든 질료들이 의미의 표층을 넘어 내용을 생산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지향하지 않고, 의미의 성취에 의미를 두지도 않는다는 말이다. 그런 면에서 앞에서 첫 번째로 언급한 작가가 보여주는 시각의 불안함과 반응의 형식은 내용과 배경의 관계가 애매하게 설정되어 있다는 면에서 공포영화적인 형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작가가 차용하고 있는 이미지들은 미술사에서 익히 알려진 유명한 작품의 장면들이다. 그렇지만 작가가 선별한 이미지들은 살해의 순간과 예수와 이 세계와의 불안한 만남과 같은 것들로 점철되어 있다. 종교적인 도상들의 의미를 뛰어넘는 애매성이 생존과 관련하여 현실의 인간들의 행위에 의해 하나의 또 다른 내러티브를 생산해내고 있는 것이다.

진실과 대면하는 개인적 의식이 가질 수 있는 존재의 역사적 확장과 속성에 관한 문제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시도로서 정당화 될 수 있는 것이다. 즉 진실이라는 것이 다분히 상대적이기 때문에, 의미부여라든지 혹은 논리적인 추론에 의해 수학적으로 만들어 지는 결론이 아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라는 제도 속에서 사회적인 사건들과 개인적인 사건들의 화해가 이루어 진다거나, 두 입장이 원만하게 해소될 수 있는 합의점을 찾는데 익숙해져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런 합의상태가 진리로서 지속되지 못하는 것을 수없이 목격해 왔다. 이것은 작가가 생산하는 작품이 시대정신을 반영한다고 말하는 칸트의 예술가와 예술작품에 대한 정의로부터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예술적 혹은 미학적 가치가 영속할 수 있다는 것은 단순히 삶에 대한 책임과 같은 의미에서의 욕망에 불과하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서로 합의를 통해 어떤 믿음을 공유하는 것에 불과하다고도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단정할 수 없는 것이 예술적 가치들이고, 한 작가의 작품이 예술작품으로서 의미를 충족시키는 것은, 그 작품이 진리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진리를 향해 열려있기 때문일 것이다. 즉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이 비교적 오랫동안 지속되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이런 해석들이 역사적인 차

원에서 어떤 이데올로기가 적용되어 악용되거나 기회주의적인 상황에 노출될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예술작품의 역사는 인간의 삶과 더불어 생멸을 거듭하기 때문에, 그것이 좋은 작품으로 생각되기 위해서는 진리와의 관계 속에서 재해석의 가능성 또한 무한히 열려있는 것으로 보아야만 한다.

이번 전시에 출품된 조습의 작품들은 현재 우리의 정체성이 어떤 진리를 포함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가와 같은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만든다. 사진적인 기록으로서의 사건, 행위의 기록으로서의 사진, 특정한 시간과 공간의 현재적인 재해석, 이미지의 분위기를 지배하는 낭패감 같은 것들이 작가의 2001년 "명랑교"라는 가상의 종교를 한국 문화가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적인 맹목성의 면에서 패러디한 개인전 "난 명랑을 보았네!"와 같은 예전 작품의 맥락을 되살려내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의 예술적인 접근에는 다분히 한국 서민들의 삶에 대한 애정과 풍자가 공존한다. 그러나 그의 작품이 단순히 방법적인 차원에서 포스트모던적인 키치적 감성만을 표현하고자 했다면 단순한 희극으로 변질되어 버렸을 것이다. 작가는 의식적이든 아니면 무의식적이든 사회의 하부구조가 상부구조와 맺는 관계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다. 즉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의 소통 문제를 이번 작품에서는 종교적이고 신화적인 차원이 개인과 맺는 관계 속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작품에서는 서양미술사에서 신화적이고 종교적인 사건들의 묘사를 재현하고 있는 이미지의 전유(appropriation)의 면에서 뿐만이 아니라, 왜 죽음과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사건들이 존재에 관한 진실의 문제와 관련될 수 있는가를 질문해야만 한다.

신화나 종교는 그 자체의 내러티브를 제시하면서 '진리성'의 문제를 하나의 체계로 제시한다. 그 체계는 제도가 되고, 제도는 인간 개개인의 삶의 속성들을 제어하는 도덕률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도덕률은 '배제의 미학'을 통해 금기를 생산해낸다. 그러나 금기가 생산되는 역사적 과정에서 많은 부분 사회적인 금기들은 금기 생산자들의 칼과 방패로 변질되어 버린다. 결국 소통의 미학은 사라지고 배제의 미학과 금기가 사회적 생산체계의 중요한 변수들로 작용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조습의 작품에서 신화는 그 같은 성격을 가지고 변질되어 왔고, 차용된 신화적 장면의 작품 이미지들은 삶의 의미를 상실한 불안한 시선으로 변형되어 버리게 되는 것이다.

그의 이번 작품들에서 몸은 철저히 파괴당하고 있다. 인간을 위한 예수의 희생은 물리적인 고통과 불안한 분위기 속에서 희석되어 버린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러티브들은 등장인물들의 표정과 자세에 의해 변질되어 버린다. 그런데 그 같은 변용(metamorphosis)은 작가 역시 현실이라는 거대한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현장의 모습들이 탈물질적 의미의 개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진 이미지로 남아있는 불안한 모습들은 인간의 몸이 가지고 있는 도구로서의 측면을 강하게 드러낸다. 작품 이미지의 등장인물들은 모두 그 안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건에 몰두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들의 시선은 철저히 타자의 시선이다. 즉 아리스토텔레스 비극론의 대전제인 '연민과 공포'가 아닌 공포만이 지배적인, 그리고 내적인 소통의 과정이 보이지 않는 학대받는 존재의 정서가 상처처럼 보여질 뿐이다. 이것은 삶을 물질적인 상황으로만 바라보는 시각적인 학대이기도 하고 또 다른 면에서는 상황을 소유하고자 하는 대립적인 태도들이 만나 갈등으로 치달는, 비극을 넘어서 비참함(abject)

의 미학을 상기시킨다.

학대받는 존재로서의 현대인에게 물질과 상황에 대한 소유의 욕망은 탐욕을 넘어서 자기 존재의 파괴를 가져올 정도가 되었다. 즉 쉽게 말하면 영혼의 파멸과 자기 정체성의 상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작가는 주체와 역사의 변증법적인 결합을 통해 죽음과 신화, 현실과 역사는 형식으로 유형화 한 것이다. 이 같은 유형화의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에서 현실이라는 이데올로기의 가장 강력한 대응물인 몸, 즉 메를로 폰티의 지각의 개념을 통해 정의되고 있는 '외부의 현실에 반응하는 몸'이라는 인식이 가능해진다. 이는 몸이 현대 사회에서 대중 방송매체의 뉴스와 수많은 사건들이 우리에게 가하는 시각적이고 청각적인 무차별성에 의해 발생하는 폭력적인 상황을 논리적인 반성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감각적이고 본능적인 반응들을 통해 행동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조셉에게 자신의 몸(행위)을 비롯해 몸이라는 일반명사로서의 개념은 현실과 사건이(역사적인 사건들이든 개인적인 사건들이든) 공존하게 되는 담론의 장소가 된다.

조셉의 이번 작품들은 인식의 프로세스 이전에 우리가 몸으로 느끼고 반응하는 삶의 근본적인 조건들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가 이번 작품들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삶의 조건들을 문화적으로 소유함으로써 발생할 수밖에 없는 집단적 가치의 불충분함에 대한 이야기들인 것이다. 우리가 문화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신화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삶의 다양한 조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단순히 개인적 삶의 불편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커다란 비극의 단초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 해야만 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런 상황 안에서 21세기에 새로이 발견되고 있는 몸은 물리적인 욕망의 담지체가 아니라, 삶을 새로이 해석하고, 광범위한 차원에서 문화적 비전을 창조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매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21세기 현실에서 몸은 검열의 대상이 아니라, 이 세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형성할 수 있게 해주는 능동적인 문화를 생산할 수 있는 주체이자 시선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조셉의 작품들은 몸이라는 포스트모던 이후 일반화된 주체들이 새로운 시선을 생산할 수 있는 동력으로서의 '타자'로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정용도(미술비평)